천연기념물 '수산동굴' 인근서 새 동굴 입구 발견

도로공사 중 확인… 전문가 "연결 가능성 조사 필요"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방향 동굴망과 연계 가능성"
도 "수산동굴 조사 용역에 미포함… 별도 조사 추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동굴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 입구가 확인돼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과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동굴 입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지난달 15일 현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 입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된 수산동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는 약 2.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통해 수산동굴에 대한 정밀 측량(3D스캔)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산동굴의 전체 연장 길이는 약 4.85㎞이며, 동굴 유로와 제2공항 예정부지 간 이격거리는 약 1.2㎞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동굴 입구가 수산동굴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형과 동굴의 진행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산동굴과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수산동굴의 동굴 유로를 보면 동굴의 유일한 출입구인 '수산한못'을 중심으로 입구에서 북쪽으로 '알벌라릿굴'과 '벌라릿굴'이 이어져 있다"며 "수산동굴 입구에서 동쪽으로 짧게 형성된 동굴 유로가 있는데, 이번에 도로 옆에서 발견된 소형동굴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이층굴'일 가능성도 높다"고 추정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번에 확인된 동굴과 수산동굴, 제2공항 예정지 방향 내 동굴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동굴의 분포 방향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향의 동굴들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굴 발견 현장 주변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수산동굴 조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견된 신규 동굴을 포함해 해당 일대의 지하 동굴망 전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면밀한 조사로 그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수산동굴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제주 수산동굴 종합학술조사' 용역에는 이번에 발견된 동굴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별도로 계획을 세워 학술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지역책임택시 조천·성산까지 운행 확대

도, 운행 범위·배치 조정… 구좌읍 내 제한 해제

지난 10월 1일부터 구좌읍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지역책임택시의 운행구역이 조천읍, 성산읍까지 확대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총 447건의 지역책임택시 호출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82건(85.46%)이 배차로 연결됐다. 시간대별 이용 비중은 오전 40.6%, 오후 59.4%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과 주민 실생활권을 고려해 운행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좌읍 내에서도 기존에 버스정류장·병의원·학교 등으로 한정했던 목적지 제한을 없앴다.

구체적으로 구좌읍에서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목적지 제한도 해제한다. 구좌읍에서 성산읍, 조천읍 지역으로 운행한 차량은 승객 하차 후 별도의 영업 없이 즉시 구좌읍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오전 운행 차량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오후 운행 차량은 7대에서 6대로 줄이는 등 시간대별 차량 배치도 조정한다. 오소범기자

제주도, 노선버스 820대 안전·청결·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2026년 하반기 노선버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준공영제·공영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10곳이 보유한 버스 826대로 자동차 정비 전문업체 인력이 업체별 주요 차고지와 회차지를 방문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청결·시설·안전·안내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좌석 파손 여부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관리상태 등 시설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안전관리 ▷노선도와 안내표지판 게시 상태 등을 확인한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점검 결과를 올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탐스럽게 익어가는 호박 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농경지에서 호박들이 가을볕을 받으며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중국 강소성 청소년 평화포럼 논의

도교육청, 난징 일원서 평화·인권 교육 현장 연수

제주도교육청이 중국 난징에서 4·3 평화 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강소성 난징 일원에서 '2026 유관 기관 연계 4·3평화·인권 교육 국외 역사 현장 연수'에 나선다. 연수에는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해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은 난징 중화문과 난징성벽 등 역사 현장을 탐방하고 4·3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에는 강소성교육청을 방문해 제주와 강소성 간 청소년 평화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강소성 청소년 평화포럼 정례화를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2028년 4·3 80주년을 계기로 청소년 공동 평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난징외국어학교와 라사루 소학교 방문도 이뤄진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난징대학살 기념관 등을 찾는다. 진선희기자

돈내코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주민 반발

비대위, 2일 중단 촉구 회견
"입지 선정부터 재검토 해야"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에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안전성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 중단과 입지 선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돈내코마을회 산하 토평동 자원순환시설 설치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제안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자 제주도민의 쉼터인 돈내코계곡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폐합성수지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그물, 부이, 로프 등 해양폐합성수지의 도외 반출 의존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 도입을 토평동마을회에 제안했다. 마을회가 타 지역에 있는 처리시설 현장 견학 등을 거쳐 사업을 검토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의 부지 임대 제안에 대해 마을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마을회 소유 부지에 폐합성수지를 비연소 방식으로 분해·처리해 나프타 등 고품질 재생유를 생산하는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부지면적은 1만3545㎡이며 하루 30t·연간 78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돈내코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 폐기물 열분해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 지하수와 용천수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폐기물을 열분해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과 화재, 폭발, 설비고장, 유출 등 사고 상황까지 고려한 안전성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